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국건강관리협회 문화예술 동호회 '마실'

직장내 동호회라 하면 으레 축구나 야구, 등산과 같은 스포츠 관련 동호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의 '마실'은 문화예술 관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적인 친목 동호회이다. 정적이지만 동적인 스포츠 동호회보다 유대가 더 돈독한 마실의 힘. 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에디터 | 이민우 사진제공 | 학전 (www.hakch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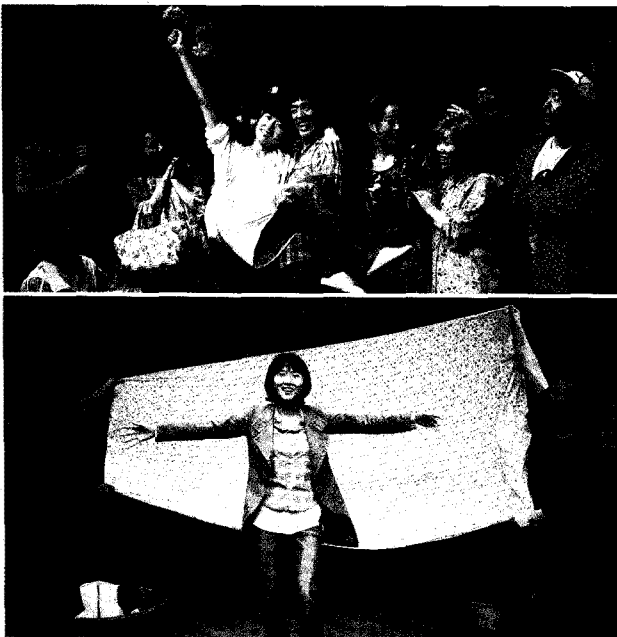


❁ 의외로 뜨거웠던 호응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의 모임인 '마실'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 공연에 흠뻑 빠져 지내는 직원들이 모여 단체 관람도 하고 자유롭게 관람 평도 나누는 문화예술 동호회이다. 2007년 결성된 마실은 현재 회원수 21명으로 타 동호회 못지않게 활동 만큼은 왕성하다. 당시 서울 서부지부에는 축구와 여행 등 몇몇 동호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 음악과 연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동호회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을 같이 관람할 직원들을 물색하기 이르렀고 의외로 직원들의 호응이 뜨거워 문화예술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공연문화는 예전에 비해 눈부실 만큼 발전하고 다양해졌지만 여가 활동으로 즐기기에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부 직원들은 동호회 결성 후 단체관람으로 비용도 절약하며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한다. 협회에서도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회 결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니 직원들은 썩고 먹고 디저트로 알도 먹는 셈이다.

'마실'은 보통 마을 혹은 다른 마을에 일손을 도와주러 가는 것을 뜻하는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흔히 쓰는 정겨운 사투리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볼 동호회 '마실'은 조금 다르다. '마실'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정겨움은 그대로이지만 색다른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잊지 못할 뮤지컬 <빨래>

마실은 여성회원이 90%, 남성회원이 10%로 여성회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동호회를 결성한 첫 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와 뮤지컬을 번갈아 관람했지만, 지금은 부서별 업무가 바빠져 자주 모일 수 없어 두 달에 한번 작품성 있는 뮤지컬 위주로 관람을 하고 있다.

"영화와 연극, 뮤지컬 동호회는 축구나 여행 동호회처럼 동적인 활동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정적인 성격의 동호회입니다. 하지만 공연을 보며 때론 웃고, 때론 울며 뜨거운 감동을 함께 공유하기에 회원들 간 결속력은 오히려 회사 내 타 동호회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좋습니다." 사실 마실 동호회를 탄생케 한 고문, 임순철 부장의 말이다. 그는 올 한해 관람했던 수많은 공연 중 최고의 뮤지컬로 <빨래>를 꼽으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고향 강원도를 떠나 하늘과 맞닿은 어느 작은 동네로 이사 온 나영은 서울의 한 서점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나영은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우연히 몽골에서 온 노동자이자 이웃집 총각인 '술롱고'를 만나게 되죠. 어색한 첫 인사로 시작된 둘의 만남은 바람에 날려 넘어간 빨래로 인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며 서서히 가까

워져요. 평범한 이웃들의 삶 이야기인데 잔잔한 감동이 긴 여운을 남기는 잊지 못할 작품이에요."

● 왕성한 공연 관람, 2010년에도 쪽 이어지길
백경민 회장은 2010년에도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해 꾸준히 공연관람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마실 사람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작품이 하나 있으니 바로 드라마를 통해 전국민적 인기를 얻은 <선덕여왕>을 뮤지컬로 제작한 뮤지컬 <선덕여왕>이다.

마실 사람들은, 2009년에는 공연관람의 대부분을 뮤지컬 관람에 치중했지만 2010년엔 뮤지컬 외에 콘서트나 음악회 감상 등 음악분야로 영역을 더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사내 동호회에 머물러 있지만 성격이 비슷한 인터넷 카페나 규모가 큰 타 동호회가 입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실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직장 내 결속력도 다질 수 있게 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내내 큰 활력소가 됩니다. 문화예술 관람은 동적인 스포츠 동호회 못지않게 기분전환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그만이에요. 한마디로 건강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만병통치약 같다고 해야 할까요?" 공연관람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힘이나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마실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10년에도 서로 얼굴 마주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6

